



보도시점 2024. 10. 30.(수) 배포 시 배포 2024. 10. 30.(수)

## 주요 김장재료 현재 가격을 김장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, 배추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전망

- 김장비용 조사는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 조사하는 것이 적절
- 농식품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김장재료 전품목에 대한 할인지원 실시

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10월 29일 기준으로 배추·무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아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19.6% 증가한 41만9천130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.

올해 김장재료의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, 주재료인 배추·무 생육이 호전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이며, 부재료인 고춧가루, 양파, 대파, 생강, 배 등도 생산량 등으로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.

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 중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사가 74%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은 11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따라서 김장비용은 김장철(11월 중순~12월 상순)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며, 10월 29일 기준으로 진행된 한국물가협회의 김장비용 조사 결과는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또한 한국물가협회에서는 11월 배추가격을 5,300원이라고 전망\*하였으나, 이와 달리 현재 배추 가격\*\*은 공급여건 개선으로 이미 3,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 배추가격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
\* 한국물가협회 : 재정운영 또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원가조사, 각종 물자·용역의 유통가격 등 제반 경제동향을 분석·연구하는 사단법인

\*\* 배추 도매가격 : (10.상순) 8,299원/포기 → (10.중순) 7,968 → (10.21) 5,560 → (10.24) 4,200 → (10.28) 3,232 → (10.30) 2,918

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모든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으로 최대 40%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김장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우식 (044-201-2231)
			서기관	김민호 (044-201-2681)
			서기관	김성만 (044-201-2685)

